

너가 지키면 나도 지킨다.

본문 신 30 : 1 - 20절

David HONG

1. 전체배경

모세의 말투가 30장에서부터 바뀝니다. 그는 저주와 경고의 장을 마무리하고, 온화하고 자비로운 말투로 미래의 회복과 희망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설사 그들이 실패해서,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서실 것입니다.

2. 해석 & 적용

1) 돌아오면, 나도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잘 아셨습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참으셔야 하고,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한번의 말씀으로 변하고, 경고만 변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여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사랑으로만 그들이 진정으로 변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참으셔야만 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순종을 촉구하면서, 저주로 경고하시면서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냉큼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으신 분이시란 소리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2) 어려운 명령이 아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순종을 명하면서, 그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율법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심을 아는 자들에게 순종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신을 믿기 보다는 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일이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준비하시며, 순종하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모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이 분명히 들릴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의 순종을 가능케 하는 것은 매일의 동행입니다.

3) 한 번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동시에 둘 다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고난을 감수하고 자신과의 싸움을 감행하고서라도 순종을 택하여 복을 누릴 수 있고, 결국 자신의 목소리에 이끌리어 쾌락과 욕망을 붙잡아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은 몰라가서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이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다루시고, 또한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들에게 한가지만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지혜로운 선택,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